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5, pp. 255-263, 2017 https://doi.org/10.15207/JKCS.2017.8.5.255

한국 신노년층의 회복탄력성과 생산적 노화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이은석[1], 안찬우[2], 조건상[3*]
[1]가천대학교 운동재활복지학과, [2]대구한의대학교 실버스포츠학과, [3]부산대학교 체육교육과

The Meditation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model between Korean new elderly class's Recovery resilience and Productive aging

Eun-Surk Yi[1], Chan-Woo An[2], Gun-Sang Cho[3*]
[1]Exercise Rehabilitation & Welfare, Gachon University
[2]Siver Sports Industry, Daegu Hanny University
[3]Physical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는 한국 신노년층의 회복탄력성과 생산적 노화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구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연구대상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지역 신노년층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집락무선표집방법을 통해 484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인 IBM SPSS 20.0과 AMOS 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그리고,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을 얻었다. 첫째, 한국 신노년들의 회복탄력성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한국 신노년들의 회복탄력성은 생산적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한국 신노년들의 자아존중감은 생산적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한국 신노년들의 회복탄력성과 생산적 노화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로서 매개효과가 있다.

• 주제어 : 신노년층, 회복탄력성, 생산적 노화,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tation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model between Korean new elderly class's recovery resilience and productive aging. This study sampled preliminary elderly people in other provinces nationwide. Data from a total of effective 484 subjects was analyzed. The collected data was processed using the IBM SPSS 20.0 and AMOS 5.0, and underwent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e model verific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covery resilience of Korean new elderly class's affect their self-esteem. Second, recovery resilience of Korean new elderly class's affect their productive aging. Third, self-esteem of Korean new elderly class's affect their productive aging. Lastly thel relationship among recovery resilience, self-esteem and productive aging of Korean new elderly class's shows partial mediation, and there is the mediation effect.

• Key Words : New elderly class, Recovery resilience, Self-esteem, Productive aging, Meditation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조건상(cgs3308@pusan.ac.kr)
Received April 6, 2017 Revised May 1, 2017
Accepted May 20, 2017 Published May 28, 2017

1. 서론

최근 한국전쟁이후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 진입은 신노년층이라는 용어와 함께 한국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예견하고 있다. 과거 경로우대의 대상이 되거나 복지혜택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노년세대와 다르게 최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신노년층은 자조적인 형태의 생활상을 통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노년시기의 노화 패러다임은 새로운 지각변동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패러다임 전화에 따라 노년기의 자조적인 생활들을 영위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에 이용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거와 현재의 노인들의 노화에 대한 패러다임변화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1980년대 이후 의료기술의 발전, 건강 증진모델의 대두와 개인의 생활방식과 선택에 따라 노화와 질병을 예방하거나 지연 할 수 있다는 낙관주의적 견해로서 사회구성원들에게 적절한 행동양식과 자기관리의 결과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성공적 노화[1, 2]의 견해가 등장하게 되었다. 당시 성공적 노화의 키워드는 노년계층의 소외와 일탈 등의 사회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인구의 역 피라미드 현상은 국가 전반에 생산성 감소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전반에 문제점에 화두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 재편기를 거치면서 국가복지의 삭감과 정부책임의 후퇴라는 사회경제적 배경 속에서 경제적 생산성의 문제와 결합된 활동이론의 연장선상에서 생산적 노화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등장한 생산적 노화는 노년기에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재평가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참여할 것을 강조한다[3]. 즉, 1990년대 이후 가속화된 인구고령화에 대한 위기의식과,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에 편승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노년기의 자조적인 생산적 노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년을 넘어 노년 사회의 진입은 기존 직장에서의 퇴직, 생물학적 노화 등의 요인들로 인해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로 인한 삶의 부정적인 인식을 접하게 되는 시기이다. 이시기에 부정적인 인식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생성되지만, 심리상태에서 수반되는 마음가짐이 이를 형성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또한 심리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노인들에게는 비판적인 사고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심리적 상태의 회복을 이야기 하는 회복탄력성이 필요하다. 회복탄력성은 '인간이 곤란에 직면하였을 때 극복하고 환경에 적응하여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능력'을 의미한다[4,5,6,7]. 이미 회복탄력성은 대인관계성의 부적응에 도움이 되며[8,9], 심리적 안녕감을 강화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10,11,12]되기도 한다. 더불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은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서 스트레스나 자살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를 완화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여가활동이나 운동실천 등을 통해 우울증 감소나 일탈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이라고 보고되고 있다[13,14]. 이는 즉 노년기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서상태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통해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의 두 가지 변인들의 인과성을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의 개념을 매개화 하여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모형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 이미 자아존중감은 회복탄력성과 생산적 노화와의 관계검증을 하는데 있어 각 개념들을 영향관계를 뚜렷하게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서 작용하고 있다. 우선 회복탄력성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이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짐으로 자살생각을 감소한다는 연구결과[15]와 함께 긍정성 증진을 통해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에서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또한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또한 생산적 노화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일자리 참여하는 노인일수록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며[17,18,19,20], 그 외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21]에서 정서적 지원제공가능성에 따라 정신건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 리뷰에 따른 관계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차원의 모형을 설정함으로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과 생산적 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지원차원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한 경로를 통해 회복탄력성이 생산적 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에 대한 살펴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신노년들의 회복탄력

성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둘째, 한국 신노년들의 회복탄력성과 생산적 노화의 관계, 셋째, 한국 신노년들의 자아존중감과 생산적 노화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한국 신노년들의 회복탄력성과 생산적 노화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신노년층의 대상으로 진행된 다년과제연구로서 2013년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지역 노년층(56세-75세)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집락무선표집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우선 전국 7개 대도시와 경기도를 포함한 9개도에 위치한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을 표집틀로 구성하고, 총25개 지역 대상 지역당 20명씩 예비노년층(56세-64세)과 노년층(65세-75세)을 10명씩 나누어 각각 250명씩 총 500명을 표집하였다. 또한 이중 이중기입이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6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484명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feature of subject of study

Section		Frequency	%
Gender	Male	218	45
	Female	266	55
Age	56-64	242	50
	65-75	242	50
Regiones	Metropolis	142	29.4
	Small & medium -sized cities	154	31.8
	Farming area	188	38.8

2.2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조사도구로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도구의 구성으로는 첫째로, 독립변수로 설정한 신노년층의 회복탄력성을 묻는 문항은 Reivich와 Shatte가 개발한 척도를 중심으로 수정·보완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23]. 이에 따른 하위변인은 감정통제력과 원인분석력, 커뮤니케이션능력, 대인관계성, 만족감 그리고 낙관성의 하위변인으로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둘째로, 종속변수로 설정한 신노년층의 생산적 노화에 대한 문항은 Kim, et al이 개발한 척도를 중심으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24]. 하위변인은 일관련활동, 가족지원활동, 경력개발활동, 그리고 사회봉사활동으로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셋째로, 매개변수로 설정한 자아존중감의 척도 구성은 생산적 노화 분석과 같이 Rosenberg가 개발한 Rosenberg Self-Esteem Scale(RSE)를 Lee, et al가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 내용을 대상에 맞게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25].

각 설문문항의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1점(매우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보통이다), 4점(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지를 통한 검사 전 문항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적용하였다.

2.3 조사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구성된 설문지를 중심으로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실시하였다. 1단계로서 설문 문항의 적합성에 따른 내용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연구진 간 회의와 사회조사분석 교수의 자문을 통해 설문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2단계로는 내적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내적타당성을 위한 절차로 첫 번째 실시한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방법과 사각회전방법을 이용하였다. 회전에 따른 기준은 공통비 .40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초기 고유값(eigen value)은 1.0이상 그리고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은 .40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중 자아존중감 척도는 단일척도로 구분하여 회복탄력성과 생산적 노화의 변수를 중심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우선 노인의 회복탄력성 척도는 6개 요인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각 하위요인의 문항과 요인부하량으로 감정통제력(5문항)은 .684~.889, 커뮤니케이션능력(5문항)은 .563~.876, 대인관계성(4문항)은 .641~.810, 원인분석력(5문항)은 .469~.879, 만족감(3문항)은 .659~.753 그리고 낙관성(3문항)은 .642~.823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총 설명량은 66.63%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검증결과는 Cronbach's α

=.678~.873으로 비교적 신뢰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생산성 노화 척도는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각 하위요인의 문항과 요인부하량을 살펴보면, 일관련(6문항)은 .546~.776, 가족지원(5문항)은 .563~.773, 경력개발(4문항)은 .598~.697 그리고 사회봉사(3문항)는 .470~.826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총 설명량은 57.50%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검증결과는 Cronbach's α=.612~.849로 비교적 신뢰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구의 내적타당성 확보를 위한 다음 단계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중 매개변수로 설정한 자아존중감은 하나의 변수로 구성되어 확인적 요인분석을 제외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회복탄력성을 묻는 문항을 중심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6개의 요인으로 적합도 지수는 Q값이 3을 넘지 않아 6개 요인 18문항 구조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GFI지수를 제외하고 전체 적합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신뢰도 분석 값 또한 Cronbach's α=.909로 높은 수준에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둘째로 생산적 노화를 묻는 척도는 4개 하위요인으로 전체적으로 적합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또한 Cronbach's α=.894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를 통해 설정된 각 변인의 적합도와 더불어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by study units

variable	CMIN/DF	GFI	RMR	RMSEA	TLI	CFI
Recovery resilience	1.825	.896	.046	.064	.918	.935
Productive aging	1.530	.902	.043	.052	.923	.935
Goodness of fit	.3≥	.90≤	.05≥	.05~.08	.90≤	.90≤

2.4 자료처리방법

이 연구의 자료수집은 신노년층이 있는 곳을 방문하여 책임 연구자를 포함한 공동연구자 4명 및 4명의 보조조사원들이 조사대상지역에 직접 방문하여, 응답 시 유의해야할 사항과 질문의 목적 및 내용을 설명한 뒤, 조사대상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다음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한 후,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또한 회수된 설문지는 IBM SPSS 20.0과 AMOS 5.0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한 후 기술통계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및 구조화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미만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3. 연구결과 및 논의

3.1 연구모형의 상관관계

생산적 노화와 회복탄력성 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모형을 검증하기 전 각 변수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상관분석 결과 <Table 3>에서와 같이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과 생산적 노화 간에는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회복탄력성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r=.644~.864로 높은 수준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회복탄력성과 생산적 노화간의 상관분석 결과에서도 각 하위변수 간 r=.472~.831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 간의 상관분석 결과에서도 r=.619~.72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상관계수를 살펴봤을 때 대부분의 하위변인 별 상관값이 r=.50이상의 높은 수준에 정적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모형분석을 하는데 적합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3.2 연구모형의 관계모형 분석

이 연구에서는 한국 신노년층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한 회복탄력성과 생산적 노화의 관계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예비모형을 바탕으로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4>과 같다.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절대적합지수인 CMIN/DF=6.893에서만 CMIN/DF=3.0 미만의 적합도에 위배되고, RMR=.017, GFI=.901은 적합도에 만족하고 있었다. 또한 증분적합지수인 NFI=.933과 TLI=.924 그리고 CFI=.942의 적합지수에서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CMIN/DF 검증에서 적합기준에 만족하지는 않았으나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수락한 것은 첫째로, 표본의 크기(n=484)가 크고, 둘째로, 모형에 대한 이론이 충분하기 때문에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뿐 타 적합도에 대한 기준들을 중요시 하였기에 전체모형의 적합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n=484)

		M	SD	1	2	3	4	5	6	7	8	9	10	11
Recovery resilience	1.emotion control power	3.66	.69	1										
	2.cause analysis ability	3.77	.74	.725**	1									
	3.communication	3.90	.64	.559**	.470**	1								
	4.interpersonal skill	3.59	.63	.640**	.622**	.540**	1							
	5.satisfaction	3.83	.75	.601**	.534**	.608**	.488**	1						
	6.optimism	3.65	.61	.566**	.553**	.511**	.568**	.644**	1					
7.Self esteem		3.36	.45	.798**	.864**	.785**	.831**	.644**	.692**	1				
Productive aging	8.work-related	3.71	.57	.472**	.683**	.616**	.629**	.798**	.579**	.725**	1			
	9.economic development	3.59	.58	.683**	.589**	.637**	.647**	.864**	.542**	.635**	.470**	1		
	10.family support	3.67	.60	.616**	.637**	.585**	.560**	.785**	.494**	.619**	.632**	.540**	1	
	11.social volunteer	3.48	.63	.629**	.647**	.560**	.545**	.831**	.538**	.575**	.423**	.583**	.488**	1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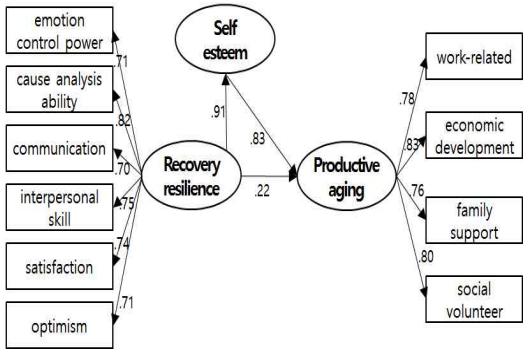
<Table 4> Evaluation of model fitness

Variable	Absolute fit index			Incremental fit index		
	CMIN/DF	RMR	GFI	NFI	TLI	CFI
Basic model	6.893	.017	.901	.933	.924	.942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한 한국 신노년층의 회복탄력성과 생산적 노화의 경로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각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의 경로계수 결과는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우선, 첫째로, 한국 노년의 회복탄력성과 자아존중감 간의 경로계수는 β=.907(t=18.915)로 p<.001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들이 감정통제력이나 원인분석력, 커뮤니케이션, 대인관계성, 만족감, 낙관성과 같은 심리적인 긍정적 정서는 노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둘째로, 회복탄력성과 생산적 노화 간의 경로계수는 β=.216(t=.4.608)로 p<.001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기의 회복탄력성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를 긍정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심리적 정서에 의해 일이나 경력개발, 가족지원 그리고 사회봉사와 같은 활동적인 노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셋째로,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자아존중감과 생산적 노화의 경로계수에서도 β=.826(t=16.248)로 p<.001로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노인들이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존중하는 정서적 지원이 생산적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Fig. 1] Path model of research

다음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직·간접 효과와 총 효과를 나타낸 것은 <Table 6>와 같다. 직접효과는 직접적 영향을 말하는 경로계수를 의미하며, 간접효과는 경로에서의 매개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경로효과 검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복탄력성에 의해 생산적 노화에 미치는 직접효과(경로계수=.907)보다 심리적 특성을 통한 간접효과(경로계수=.749)가 있었을 때 총 효과(경로계수=.965)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다시 말하면, 회복탄력성에 의해 생산적 노화가 나타나는 것보다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측면의 정서적 자원이 매개됨으로서 생산적 노화로 이어진다는 것으로 자아존중감을 통한 인과성 모형에 적합성을 보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bootstrapping방법을 이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을 실시하였다.

<Table 5> Path coefficient of the basic model

Path	β	S.E	CR(t)/sig
Recovery resilience →emotion control power	.707	.075	14.915***
Recovery resilience →cause analysis ability	.819	.081	17.245***
Recovery resilience →communication	.700	.070	14.778***
Recovery resilience →interpersonal skill	.745	.069	15.718***
Recovery resilience →satisfaction	.735	.082	15.511***
Recovery resilience →optimism	.710	-	-
Recovery resilience →Self esteem	.907	.051	18.915***
Recovery resilience →Productive aging	.216	.048	4.608***
Self esteem →Productive aging	.826	.049	16.248***
Productive aging →work-related	.777	-	-
Productive aging →economic development	.831	.050	21.516***
Productive aging →family support	.763	.053	19.323***
Productive aging →social volunteer	.801	.055	20.546***

*** p<.001

bootstrapping의 반복횟수는 500번으로 지정하였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여 실시한 결과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 생산적 노화의 부분매개모형 매개효과는 β =.749으로 나타났으며, bootstrapping을 통한 유의성 검증에서 유의도 값은 p=.002로 나타나 회복탄력성과 생산적 노화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Hypothesis testing & Mediating effecting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Recovery resilience→ Self esteem	.907	-	.907
Recovery resilience→ Productive aging	.216	.749	.965
Self esteem→ Productive aging	.826	-	.826

3.3 논의

급변하는 사회와 그러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야만 살아남는 복잡한 경쟁구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된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는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배우자, 형제 친척의 죽음, 실직, 빈곤과 같은 부정적인 생활사건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됨으로 연속적인 갈등과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해 발현되는 현상으로 두통이나 고혈압 그리고 불안정한 심리적 증상, 사회적 고독감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26,27].

노년기의 심리적 소진은 신체적 노화에 따른 생활의 어려움 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며, 급기야는 죽음이라는 선택까지도 불사하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노인들은 노화에 따라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 심리상태로 인해 삶을 무료하게 보내거나 무의미한 삶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노년의 회복력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회복력을 나타내는 회복탄력성을 통해 생산적 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를 검증하였고, 회복탄력성에 의해 생산적 노화가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노화에 따른 신체적, 사회적 측면이 노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를 인지하게 되는 것이 심리적 상태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노인복지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능력으로서 회복탄력성을 언급하면서, 회복탄력성에 의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28,29]. 또한 개인의 탄력성으로 인해 불안한 정서나, 삶에 대한 긍정적 참여를 만듦으로서 개방성과 유연성을 만들어 낸다고 보고되고 있다[30,31]. 즉, 노년기의 정신적 회복은 삶의 정서의 긍정화를 통해 노년의 생산적 노화 인식을 긍정화 함으로써 새로운 노년의 삶을 제시하게 된다는 것이다[32,33]. 이와 같이 이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구노인들에 비해 신노년들은 새로운 노년의 생활을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2004년 시행된 노인일자리 사업은 경제적인 부분으로 노인들의 복지 측면뿐만 아니라 새로운 노년에 대한 삶의 회복이 아닐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에서와 같이 노년의 새로운 생산적 삶을 위해서는 정서적인 회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맞

추어 긍정적 정서를 위한 회복탄력성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제시하여 노인복지에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한국 신노년층의 회복탄력성과 생산적 노화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에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신노년층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공변량구조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의 결과를 내릴 수 있었다. 첫째, 한국 신노년들의 회복탄력성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한국 신노년들의 회복탄력성은 생산적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한국 신노년들의 자아존중감은 생산적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한국 신노년들의 회복탄력성과 생산적 노화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로서 매개효과가 있다.

이에 따른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쟁이후 베이비부머에 해당하는 노년세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미 과거 20년 전에도 노인들은 경제적 측면의 생산적 활동을 요구하고 있는 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생산적 노화에 대한 욕구가 큰지에 대해서 밝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위해 실증적인 인과모형분석 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내용을 얻기 위한 다양한 연구방법의 접근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2012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비(NRF-2012-S1A5A2A03034025)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

REFERENCES

[1] Estes, C. L., Mahakian, J. L., Weitz, T. A.,“A political economy critique of ‘productive aging’. In C.L. Estes & Associates, Social policy and aging: A critical perspective (pp. 187-199).”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2001.

[2] Holstein, M. B., Minkler, M., “Self, society, and the new gerontology.”The Gerontologist, Vol. 43, No. 6, pp. 787-796, 2003.

[3] Morrow-Howell, N., Hinterlong, J., Sherraden, M.,“Productive aging: Concepts and challenges.”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1.

[4] Anthony, E. J.,“Risk,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n overview. In E. J. Anthony & B. J. Cohler (Eds.), The Invulnerable Child(pp. 3-48).”New York: Guilford Press, 1987.

[5] Garmezy, N.,“Reflections and commentary on risk, resilience, and development, In Haggerty, P. J., Lonnie, P. S., Garmezy, N., & Rutter, M. (Eds.), Stres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ren and Adolesents-Process, Mechanism, Intervention.”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6] Luther, S. S., Cicchetti, D., Becker, B.,“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Child Development, Vol. 71, pp. 543-562, 2000.

[7] Olsson, C. A., Bond, L., Burns, J. M., Vella-Brodrick, D. A., Sawyer, S. M.,“Adolescent resilience: A conceptual analysis.”Journal of Adolescence, Vol. 26, pp.1-11, 2003.

[8] Werner, E. E., Smith, R. S.,“Overcoming the odds: High 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9] Cowen, E. L., Wyman, P. A., Work, W. C., Parker, G. R.,“The rochester child resilience project: Overview and summary of first year findings.”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Vol. 2, pp. 193-212, 1990.

[10] Alim, T. N., Feder, A., Graves, R. E., “Trauma, resilience, and recovery in a high-risk African-American popula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 165, No. 12, pp. 1566 - 1575, 2008.

[11] Cooke, G. P .E., Doust, J. A., Steele, M.,“A survey of resilience, burnout, and tolerance of uncertainty in Australian general practice registrars.”BMC Medical Education, Vol. 13, No. 2, pp. 1472-1478.

[12] Ming, L., Chao, L., Xiao, X., Jiang, Q., Yan, D., Qinglin, Z.,"Evaluation of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Chinese version of the Resilience Scale in Wenchuan earthquake survivors." Comprehensive Psychiatry, Vol. 53, No. 5, pp. 616-622, 2012.

[13] G.S.Cho, E.S.Yi,"Analysis on leisure patterns of the pre-elderly adults."Journal of Exercise Rehabilitation, Vol. 9, No. 4, pp. 438-445, 2013.

[14] G.S.Cho, D.S.Kim, E.S.Yi," Verification of relationship model between Korean new elderly class's recovery resilience and productive aging."Journal of Exercise Rehabilitation, Vol. 11, No. 6, pp. 326-330, 2015.

[15] J.Y.Yeo, T.Y.Park, "A Study of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The Mediation Effect of Resilience and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0, No. 8, pp. 155-178, 2013.

[16] Y.J.Lee, J.J.Chang, B.K.Chung, "The Effects of the positive enhancement program on resilience, self-esteem and gratitude."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abilities, Vol. 31, No. 2, pp. 175-197, 2015.

[17] J.H.Kim, G.H.Han, "Relationship of volunteering and self-esteem among the Older Adult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21, No. 2, pp. 209-224, 2001.

[18] C.Y.Kweon, S.W.Kim, J.C.Lim, H.J.Lee,"Effect of work participation on the self-esteem of the elderly."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27, No. 2, pp. 427-443, 2007.

[19] J.C.Lim, K.H.Ju, B.W.Lim,"Effect of work participation on the depression of the elderly: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57, pp. 29-50, 2012.

[20] Baker, L. A., Cahalin, L. P., Gerst, K., Burr, J. A.,"Productive Activities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Older Adults: The Influence of Number of Activities and Time Commitment."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73, pp. 431-458, 2005.

[21] Krause, N., Shaw, B. A.,"Giving social support to others, socioeconomic status, and changes in self-esteem in late life."Journal of Gerontology, Vol. 55, pp. 323-333, 2000.

[22] Li, Y., Ferraro, K. F.,"Volunteering in middle and later life: Is health a benefit, barrier or both?"Social Forces, Vol. 85, pp. 497-516, 2006.

[23] Reivich, K., Shatte, A.,"The resilience factor: Seven essential skills for overcoming life's inevitable obstacles."New York: Broadway Books, 2002.

[24] J.H.Kim, K.Ryu, J.I.Rie, Y.W.Kang, "Generation Differences in Importance Perception of Productive Ageing and the Validity Analysis of Productive Ageing scale.",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 24, No. 1, pp. 1-27, 2011.

[25] J.Y.Lee, S.K.Nam, M.K.Lee, J.H.Lee, S.M.Lee,"Rosenberg' Self-Esteem Scale: Analysis of Item-Level Validit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 Psychotherapy, Vol. 21, No. 1, pp. 173-189, 2009.

[26] Subbulaxmi, S.,"Productivity and Stress." Management, Vol. 2, No. 3, pp. 26-28. 2002.

[27] Souza-Talaricol, J. N. D., CaramelliII, P., NitriniIII, R., Correa, E.,"Stress symptoms and coping strategies in healthy elderly subjects."Rev Esc Enferm USP, Vol. 43, No. 4, pp. 801-807, 2009.

[28] Connor, K. M., Davidson, J. R. T.,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Depression and Anxiety, Vol. 18, pp. 76-82, 2003.

[29] Ong, A. D., Bergeman, C. S., Bisconti, T. L.,"Psychological resilience, positive emotions, and successful adaptation to stress in later life."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1, No. 4, pp. 730-749, 2006.

[30] Block, J., Kremen, A. M.,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 and separateness."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2, pp. 349-361, 1996.

[31] K.H.Yang, M.G.Jeong, “Mediating Effects According to Family Type in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and Material Factors and Depression in the Elderl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Vol. 13, No. 7, pp. 437-444, 2015.

[32] Eun Mi Lee, Yun Jeong Oh,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and Parent Efficacy among Parents of Preschool Child",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6, pp. 141-150, 2016.

[33] H.H. Sung, J. Yoon, “Study on Convergence Using Carotid Ultrasonography in Metabolic Syndrome risk factor”,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195-200, 2015.

저자소개

이 은 석(Yi, Eun Surk)

- 1993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체육학사)
- 1997년 8월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체육학석사)
- 2003년 8월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이학박사)
- 2005년 3월 ~ 2011년 8월 : 대구한의대학교 실버스포츠산업학과 교수
- 2011년 9월 ~ 현재 : 가천대학교 운동재활복지학과 교수
- E-Mail : yies@gachon.ac.kr

<관심분야> : 스포츠사회학, 운동재활복지, 학제간융합연구

조 건 상(Cho, Gun Sang)

- 1997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체육학사)
- 2003년 8월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체육학석사)
- 2008년 8월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이학박사)
- 2009년 3월 ~ 2017년 2월 : 대림대학교 스포츠지도과 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부산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 E-Mail : cgs3308@pusan.ac.kr

<관심분야> : 스포츠교육학, 학제간융합연구

안 찬 우(Ahn, Chan Woo)

- 2004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체육학사)
- 2006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체육학석사)
- 2011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이학박사)
- 2015년 3월~ 현재 : 대구한의대학교 실버복지스포츠학부 교수
- E-Mail : acw@dhu.ac.kr

<관심분야> : 스포츠사회학, 스포츠복지, 학제간융합연구